

■ 제주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조례안

국가경찰-자치경찰 기싸움 '점입가경'

국가경찰 "운영방식·정원 규정 부당... 제주청장도 패싱"
자치경찰 "국가경찰 무리한 주장... 출범후 논의하면 돼"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방식과 정원을 규정하는 조례안 심사를 앞두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치열한 기싸움을 하고 있다. 특히 국가경찰은 원안대로 조례가 통과하면 재의 요구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논란의 조래는 제주도가 입법 예고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운영 조례)과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정원 조례)이다.

두 조례는 17일 개최한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운영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의 운영 방식을,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에 참여할 인원과 정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사무를 지원·감독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제주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가경찰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자치경찰이 제주특별법에 따른 자치경찰 사무를 각각 수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자치경찰위는 두 기관의 이런 업무를 명확히 구분할 예정이다.

국가경찰은 조례 내용 중 7가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중 주요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국가경찰은 조례에 나온 자치경찰위 전체 정원 20명 중 자치경찰 몫이 8명인데 반해 국가경찰은 3명뿐이어서 앞으

로 자치경찰 주도로 자치경찰위가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조례에는 자치경찰사무를 정할 때 '제주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임의 규정으로 돼있어 경찰청장이 '패싱'당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경찰 관계자는 "국가경찰 인원이 1000여명, 자치경찰은 150여명으로 자치경찰 인원의 5%에 해당하는 8명을 자치경찰위 정원으로 잡은 건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

가 있다"며 "자치경찰 정원을 줄이고, 국가경찰이 파견 형태로 자치경찰위에 참여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지역은 자치경찰위원 국가경찰 10여명을 파견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장 의견 청취가 임의 규정으로 명시된 것에 대해선 "17개 시도 중 약 80%가 반드시 의견을 듣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며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행안부에 재의 요구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경찰법 개정안 시행령은 자치경찰위에 참여할 국가경찰 정원을 3명으로 명시했다"며 "파견 형태로 국가경찰이 더 많이 참여하고 싶으면 자치경찰위가 우선 출범한 뒤 그때 가서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청취 규정에 대해선 "합의제 행정기구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이해당사자 기관의 의견을 청취를 임의 규정으로 하고있다"며 "의무 규정으로 못박으면 위원회의 독립성이 저해된다. 또 합의제 행정기구인데 경찰청장을 패싱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나"고 반박했다.

이상민기자 hasm@halla.com



국가경찰이 17일 자치경찰위 관련 조례안을 심사하는 제주도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자치경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환경미화 인력업체發 코로나 여파 중문지역 호텔 확진자 발생... 방역당국 동선 공개

제주지역 환경미화 인력 파견 업체 소속 직원발 n차감염이 확산될까 우려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미화 인력 파견 업체 (주)룩산에버그린 소속 직원 관련 역학조사 진행 중 서귀포시 중문동 소재 신라호텔에서 추가 확진자(제주 613번)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613명으로 늘었다.

613번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은 611번의 접촉자다. 611번은 도내 호텔 등에 환경미화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소속 직원으로, 앞서 지난 15~16일 해당 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이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소재 신라호텔 1층 일방음식점 '로비라운지 바탕'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파악하고 동선을 공개했다. 확진자 근무 시각은 지난 15일 낮 12시~오후 10시30분, 지난 16일 낮 12시~오후 3시까지다.

제주도는 신라호텔을 포함, 협력업체 직원 등 500여명에 대한 전수 검사에 착수했다.

613번은 현재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귀포의료원 입양병상으로 이송돼 격리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 무더기 적발

자치경찰단 "공터나 가건물 창고에서 불법으로 차 정비"

인적이 드문 공터나 가건물 창고 등에서 불법으로 자동차를 정비한 업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 사진

제주자치경찰단은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영업활동을 한 4명,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정비업자 3명 등 총 7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정 등급 이상의 정비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불법 정비를 벌이거나 부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를 정비한 혐의를 받고있다.

자치경찰은 지난 2월부터 한달여간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대한 기획수사활동을 펼친 결과 이같은 혐의를 받는 7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자 A(50)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 한 가건물 창고를 임차해 자동차 정비를 해



주요 3600만원의 불법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미설치 시설을 운영한 데다 3급 자동차 정비업 자격만 갖춘 채 관공·도장 행위 한 혐의다. 관공과 도색 작업을 하기 위해선 1급과 2급 이상의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필요하며 특정 면적 이상의 부지 시설도 갖춰야 한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불법 자동차 정비로 인해 보상과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볼수 있다"며 "주거지역의 모니터링과 점검을 통한 기획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혹 수사 본격 경찰, 제주도로부터 도민 의견조사 관련 자료 확보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한다.

17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제주도 카지노에 대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 받았다.

이번 임의제출은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김기병 롯

데관광개발 대표와 LT카지노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진 것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롯데관광개발은 중문관광단지 내 롯데호텔에서 운영 중인 LT카지노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8일 제주도에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점수 1000점 중 200점을 차지하고 있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나왔다는 점이다. 롯데관광개발이 여론조사 대상을 드림타워 카지노에 대해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단체로 정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후 같은해 8월 13일 드림타워는 80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임의제출을 했다고 제주도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라면서 "단지 제주도가 갖고 있는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드림타워 사업자는 도민 의견조사를 카지노영향평가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실시했다"며 "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의견 조사를 했다는 것은 제주도정이 드림타워 측과 짜짜미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제주도의회에 드림타워 카지노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송은범기자

"4·3 무죄판결 적극 환영"

제주4·3연구소는 16일 성명을 통해 유족은 물론 온 도민과 함께 역사적인 4·3 무죄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의 이번 판결은 4·3 발생 70여년

만에 이뤄진 제주도민 명예회복이나 다름없다"며 "제주4·3 수형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이룬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그랜드보청기

2021히트브랜드대상 품앗이 특가할인!
전장보험공단 제출 서류 업무 대행 해드립니다.

2021 히트브랜드 대상 1위
THE HIT BRAND AWARD 1ST PLACE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샅샅들 흔저 전화 주십시오! 기다렸습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중전식 보청기 80만원대부터
청각장애인 보조금 최대 131만원

NAVER에 그랜드보청기·O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동쪽 100m 구행복빌딩 건너편
제주시 서광로 240-1 2층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리마출소, 한국병원, 국제보청기(국제기계점), 한라세육관, 일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SM그룹 에스엠신용정보

생각만해도 머리 아픈 돈, 돈! 최선으로 받아줍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에스엠신용정보**를 선택하십시오!
만족으로 보답해 드립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부동산대금, 투자금, 빌려준돈(판결문, 공증), 약정금, 구상금, 계돈

고객님 언제든지 전화, 방문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며 착수금(선불경비)일체 받지 않습니다

에스엠신용정보 제주지사 ☎ 064)756-9041

직원모집 추심관리사, 영업전문직을 모집합니다 064)725-9001